
5분 자유발언

- 북촌의 시작은 고성에서 -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고성군이

‘조선 건축왕’ 이자 독립운동가인

정세권 선생의 정신을

현대 관광으로 잇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소음과 혼잡,

사생활 침해로 주민 갈등이 커지자

종로구는 올해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백만 명 중 단 1%만 고성으로 유도해도
연 6만 명이 방문하여 숙박·식사·체험을 통해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고성 출신의 건축왕이자 독립운동가
정세권 선생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세권 선생은 하이면 덕명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북촌과 익선동에 근대 한옥을 지어
조선인의 주거권을 지켰고,
조선물산장려회·신간회·조선어학회를 지원하며
‘집을 짓는 방식의 독립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현재 고성에는 생가가 복원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세권=북촌’으로만 인식되고

‘고성군의 정세권’은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전시 공간이던 북촌 한옥 역사관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운영을 종료했고, 9월 북촌문화센터 홍보 전시 공간이 재단장하여 전시가 새로 개관했습니다.

또한, 최근 KBS 다큐 <북촌 한옥의 시작, 정세권>이 방영되고, 영화와 드라마 속 한옥이 배경이 되는 지금이 바로 고성군이 주목받을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정세권 선생의 고향인 고성에서 새로운 전시·체험 콘텐츠의 한 축으로 참여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고성이 정세권 정신의 원류이자
전국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세권 생가를 재정비해
‘북촌-익선동-고성군’을 잇는 이야기 지도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도입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고성까지 오도록
체류 동기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구 덕명초 일대에
‘정세권 발자취 박물관(가칭)’을 조성하여
건양사 정신과 조선어학회 지원 이야기를
체험형 전시로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 숙박 체험입니다.
방문객이 단순히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머물며
전통 한옥의 멋과 생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한옥 체험 촌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숙박과 체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체류형 관광이 완성됩니다.

넷째, 교육 연계입니다.
정세권 선생이 고성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직 지역 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소개하고,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홍보 강화입니다.
‘북촌의 시작은 고성’이라는 주제로
짧고 감동적인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와 관광 플랫폼에 확산시키고,
서울 북촌 현장에는 QR 안내판을 설치해
고성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덕명 일대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개발에 제약이 있지만,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문화·관광·교육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은 이미 공룡 해안과 상족암, 덕명항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세권’이라는
인물 유산이 더해진다면
‘보고 머무는 관광’을 넘어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여행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촌 관광객의 단 1%만 고성으로 유도해도
연 수십억 원의 지역 매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세권 선생이 그랬듯,
우리도 집을 짓고, 이야기를 세우며,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북촌의 시작은 고성에서.”

정세권 선생의 뜻을 잇는
고성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